

세계 제일의 교육 출판 미디어 그룹 꿈꾼다

프랑스의 비벤디 유니버설 퍼블리싱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새해 벽두부터 4주 넘게 흥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반지의 제왕>은 급기야 소설 《반지의 제왕》을 다시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려 놓았다. 지금까지 수백만권이 팔린 이 책을 처음 출간한 곳은 미국의 휴턴 미플린(Houghton Mifflin)이라고 하는 출판사다. 휴턴 미플린은 16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네번째로 큰 교육출판사인 《헤리티지 사전(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을 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 지난해 프랑스의 종합 미디어그룹인 비벤디 유니버설 퍼블리싱(Vivendi Universal Publishing, 이하 VUP)에 매각됐다.

14개 언론 · 출판사 거느린 거대 그룹 VUP

VUP는 프랑스의 대기업 가운데 하나인 비벤디 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교육 출판 미디어 그룹이다. VUP는 교육 및 오락 그리고 출판 사업에 치중하는데, 그 산하의 대표적인 언론과 출판사는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월간지 《레튀디앙(L'Etudiant)》 그리고 인문서를 주로 내는 종합출판사 로베르 라퐁(Robert Laffont), 플롱(Plon), 시로스(Syros), 페랭(Perrin) 등이 있고, 사전 출판사인 라루스(Larousse), 르로베르(Le Robert), 아랍스(Harrap's), 교육출판사 나탕(Nathan), 보르다스(Bordas), 아르망 콜랭(Armand Colin), 뒤노(Dunod), 달로즈(Dalloz) 등이 있다. 이런 사업체들을 통해 VUP가 벌어들인 액수는

인수합병으로 세계 제일의 교육 출판 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는 VUP 그룹의 아녜스 투렌느 대표.



36억 유로를 넘어서며(2000년 집계) 그 수입의 반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VUP는 프랑스 내에서도 아셰트(Hachette) 그룹과 함께 프랑스 전체 출판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자체에 두고 있는 유통 조직을 통해 수많은 독립 출판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출판계의 매머드라고 할 수 있는 VUP의 모기업인 비벤디 그룹은 1853년에 세워진 프랑스 수자원 회사를 기초로 성장한 그룹이다. 비벤디 그룹은 주로 교통, 이동 통신, 방송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가 출판 분야에 손을 대게 된 것은 스벤 닐센(Sven Nielsen)이 1926년에 설립한 시테(Cite) 출판 그룹(중간에 아바스(Havas) 그룹 소유가 되기도 한다)을 2000년에 인수하면서부터였다. 그렇게 해서 시테 출판 그룹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벤디 그룹의 이념에 걸맞게 비벤디 유니버설 퍼블리싱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달고, 프랑스 출판 미디어 시장은 물론 세계 출판 미디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도약했던 것이다.

세계 2위 교육출판 그룹으로 도약

그 일환으로 휴턴 미플린을 17억 달러에 매입한 VUP는 세계 5위 교육 출판 미디어 그룹의 지위에서 영국의 피어슨(Pearson) 그룹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됐다. 물론 이런 투자가 《반지의 제왕》과 《헤리티지 사전》을 염두에 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비벤디 그룹 회장인 장 마리 메시에(Jean-Marie Messier)와 이번 거래의 주체이자 그 산하 그룹인 VUP 사장 아녜스 투렌느(Agnes Touraine)가 주목했던 것은 미국의 교육 출판 미디어 시장이었다. 교육 출판 미디어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이 곧 세계시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휴턴 미플린에 대한 VUP의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VUP가 휴턴 미플린에 투자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VUP는 오락 게임 인터넷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해왔는데, 그 내용을 채울 것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교육 출판사로 명망이 높은 휴턴 미플린의 브랜드 이미지와 다양한 콘텐츠가 VUP의 구미를 당겼던 것이다. 마침 휴턴 미플린 측에서도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교육 출판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자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결국, 지난해에 VUP 그룹 대표로 선출된 아녜스 투렌느는 앞으로 교육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며 교육 상품을 어떻게 가공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휴턴 미플린의 인수를 아주 중요한 마무리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VUP의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한다. “교육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출판, 게임,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감쌀 것입니다.” ■